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중국 2Q 및 6월 주요 경제 지표

당사 예상 부합; 내수 부진 속 수출이 견인하는 성장세 지속 전망

- 2Q 성장을 전년 대비 4.3%로 당사 예상과 일치했으나 금융시장 예상(4.5%)보다 소폭 낮았음. 고유가와 에너지 수급난 완화되며, 하반기 완만한 회복 전망
- 글로벌 AI 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 등으로 수출은 하반기에도 양호할 전망. 반면, 내수는 주택시장 침체, 지방 재정 여력 부족, 반내권화 정책 등으로 부진 예상

중국의 2Q GDP는 전년 대비 4.3%를 기록하며 당사 전망(4.3%)에는 부합했고, 금융시장 예상(Bloomberg 기준 4.5%)보다는 낮았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0.9%를 기록하여 '24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고유가와 에너지 수급난으로 산업 생산이 1Q(6.1%)에 비해 둔화한 4.6%를 기록했고, 소비와 고정 자산 투자도 주택시장 부진 및 그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악화, 이구환신의 기저 효과 등으로 부진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반면, 4~6월 중 수출입은 각각 전년 대비 20.2%와 29.5%를 기록하며 양호했다(이하 전년 대비). 물론 수입 증가율이 수출을 상회했으나, 이는 주로 물량보다는 반도체, 원유 등의 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중국 경제는 2Q의 부진을 딛고 3Q부터 수출이 견인하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중국의 수출은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전기차, 태양광 등), 유가 하락에 따른 글로벌 제조업의 완만한 회복세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반면, 내구재 소비, 고정 자산 투자 등은 주택시장 부진의 여파가 이어지며 하반기에도 부진할 전망이다. 1선 도시의 주택 거래는 개선되고 있으나 구축이 중심이고, 2선 이하는 거래도 부진하고 가격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인프라 투자 확대보다는 LGFV 부채 상환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중국 정부의 반내권화 정책과 맞물리며 고정 자산 투자의 부진을 장기화할 전망이다. 그에 따라 당사는 '26년 중국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4.7%로 유지한다.

(중국의 6월 주요 경제 지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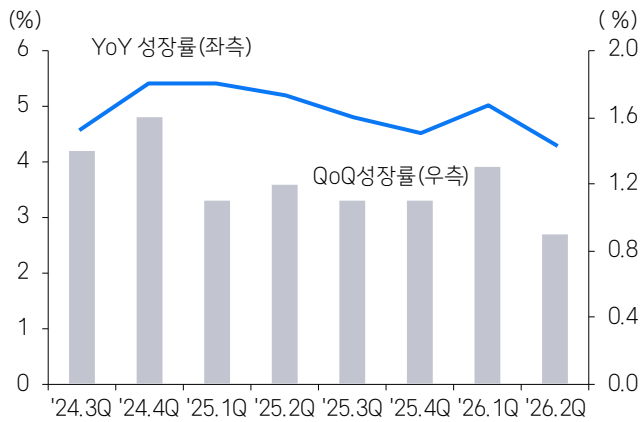
한편, 6월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5.3%로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제조업이 6.0%를 기록했는데, 선박 등 운송장비(18.2%), 컴퓨터, 통신, 전자제품(15.7%), 자동차(8.7%) 등이 양호한 영향이다. 반면, 화학(-0.1%), 비철금속(-3.8%) 등은 에너지 수급난으로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고정 자산 투자(명목, 누적)도 -5.7%로 부진했다. 이는 부동산 투자가 주택시장 침체로 큰 폭의 감소(-15.9%)를 지속한 가운데,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도 각각 -2.4%와 -1.2%로 (-)로 전환되었다.

면적(누적) 기준 주택시장 지표는 착공(-24.1%), 완공(-25.3%), 판매(-12.4%) 모두 큰 폭의 감소를 지속했다. 주택 가격(신축 기준)은 1선 도시가 -1.3%를 기록한 가운데, 2선 및 3선 도시는 각각 -3.1%와 -4.2%를 기록했다. 한편, 소매 판매(명목)도 1.0%로 부진했다. 이구환신 효과가 사라지며 자동차(-16.1%), 가전(-8.7%)가 부진했으며, 음료(5.8%), 의복(3.9%), 화장품(12.6%) 등 비내구재는 양호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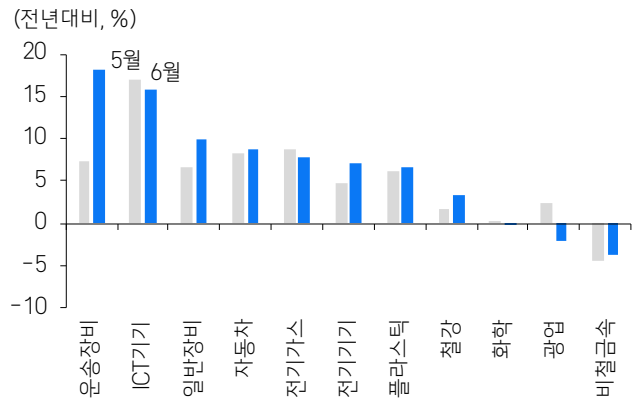
중국 '26년 2Q 성장률 둔화



참고: 전기 대비는 계절조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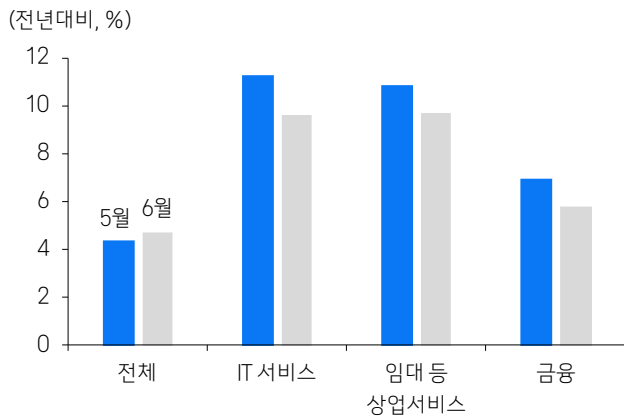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삼성증권

중국 6월 업종별 산업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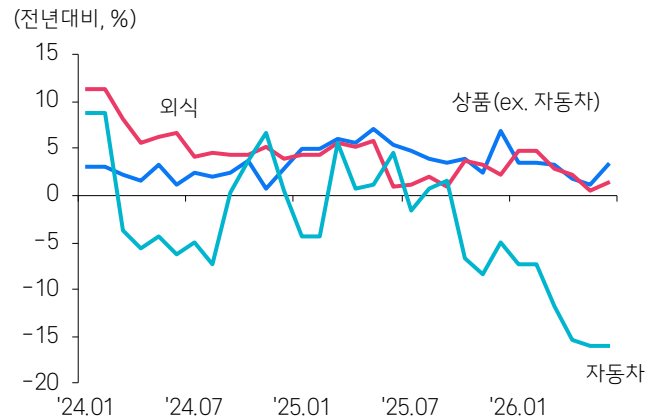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6월 업종별 서비스업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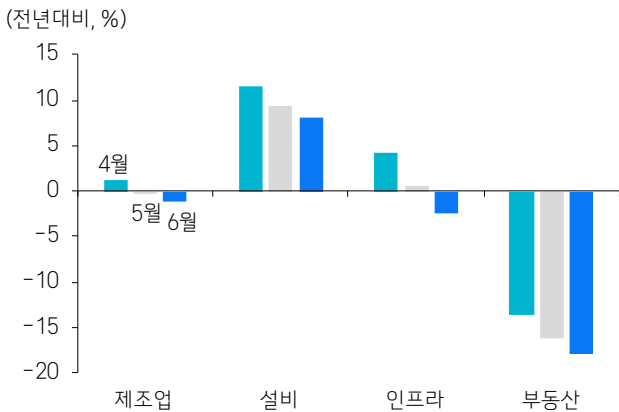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삼성증권

중국 소매 판매 중 자동차 판매 부진 지속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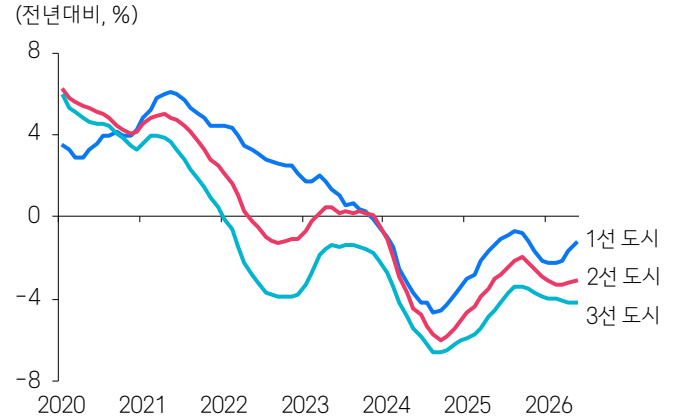
중국 고정 자산 투자는 전반적으로 부진



참고: 연간 누적 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삼성증권

중국 신축 주택 가격 추이



참고: 70개 주요 도시 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